

# 다니엘서 - 번호 50

## 다니엘서 8장의 예언적 신비 풀기: 팔모니의 계시

Jeff Pippenger

2024-01-14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은 성경 예언에 나오는 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받고, 그 뒤에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표현된 천상의 대화를 듣는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자가 말하였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던 그 어떤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과에 관한 그 이상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 성소와 군대가 다 짓밟힘을 당하겠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13, 14.

처음 열두 절은 그 환상을 나타내고, 13절과 14절은 또 다른 환상을 가리킨다. 'take away'로 번역되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 두 개와, 'sanctuary'로 번역되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 8장에는 'vision'으로 번역되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 두 개도 있다.

'take away'로 번역된 두 단어에 관해서는, 재림교 신학자들은 그 단어들이 모두 'remove'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anctuary'로 번역된 두 단어에 관해서도, 재림교 신학자들은 그 단어들이 모두 'God's sanctuary'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vision'으로 번역된 두 단어에 관해서는 재차 그 둘의 구별을 얼버무린다. 그 구별은 다니엘에게 충분히 중요했기에 그는 의도적으로 서로 매우 다른 히브리어 단어 두 개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별을 분명히 하고 지켜야 한다. 13절의 'vision'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chazon'이며, 꿈, 계시, 또는 신탁—곧 환상을 뜻한다.

다니엘서 8장에서 "vision"이라는 단어는 열 번 등장하지만, 두 가지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가리킨다. 13절에 나오는 "Chazon"은 1절에서도, 2절에서는 두 번, 물론 13절에서도, 그리고 15절, 17절, 26절에서도 한 번씩 발견된다. 다니엘서 8장에서 "vision"이 열 번 중 일곱 번은 "chazon"으로, 단순히 "환상"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8장에서 "vi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른 세 번은 히브리어 "mareh"로, "광경" 또는 "나타남"을 뜻한다. 8장에서는 히브리어 "mareh"가 한 번은 "vision"이 아니라 "appearance"로 번역되어, 그 단어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해 준다. 번역자들이 같은 단어로 취급할 정도로 의미가 매우 비슷한데도 다니엘은 왜 서로 다른 두 히브리어 단어를 썼을까? 그것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 속의 모든 원리는 제자리가 있고, 각 사실은 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조는 설계와 실행에 있어 그 저자를 증언한다. 그러한 구조는 무한하신 분의 지성 외에는 그 어떤 지성도 구상하거나 형성할 수 없다." 교육, 123.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니엘이 왜 구별을 두었는지는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왜 그 구별을 두었는지를 묻는 첫 번째 질문을

이해하려고 탐구하는 것은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의 책임이 됩니다. 그가 '성소'로 번역된 단어와 '제거하다'로 번역된 단어에 관해 한 구별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왜 '환상'으로 번역된 단어의 중요성은 더 낮다고 기대하겠습니까?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관련성'을 지니며, 예언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실행'될 때 예언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8장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 다니엘의 증언에 '관련'이 있는 하나의 '사실'은 다니엘 8장 13절의 질문에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대답한 이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다니엘서 8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네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올라이 강의 환상이 말세를 위한 예언으로 여겨져 왔고, 또한 1798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서의 "지식"을 상징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는 우리 사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마 권세와 교황권에 관하여는 어떤 부분에서는 덜 말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바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성령께서는 예언을 주시며 있어서도, 묘사된 사건들에 있어서도, 인간 도구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야 하며, 하늘의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모든 일을 그렇게 안배하셨다.

다니엘서를 읽으라. 그곳에 묘사된 왕국들의 역사를 조목조목 상기하라. 정치가들, 의회들, 강력한 군대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사람의 교만을 낮추시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엮드리게 하셨는지 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으로 나타난다.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그분은 한 강력한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이를 세우시는 모습으로 보이신다. 그분은 우주의 군주, 곧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신다—옛적부터 계신 이, 살아 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현재의 통치자요, 미래를 계시하시는 분. 사람이 헛됨 가운데 자기 영혼을 높일 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그르치기 쉬우며, 얼마나 죄 있는지를 읽고 깨달으라.

성령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 하나님께—시선을 돌리게 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통치권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9:6].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빛은 특히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그가 시날의 큰 강들인 올라이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들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일들이 머지않아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다니엘의 예언이 주어졌을 당시 유대 민족의 형편을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성전의 봉사는 중단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제사 제도의 의식들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외형적 형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참된 예배의 정신은 잃어버렸다. 그들의 봉사는 이방의 전통과

관습에 물들어 있었고, 제사의식을 행하면서도 그림자를 넘어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인류의 죄를 위한 참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했다. 주께서는 외형적 의식이 그들의 종교의 전부라 되지 않도록,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성전의 봉사를 중단시키셨다. 그들의 원칙과 관행은 이방주의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했다. 마음의 봉사가 회복되도록 의식적인 봉사는 중단되었다. 영적인 것이 드러나도록 외적인 영광이 거두어졌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던 땅에서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자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들에게는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외적 표징이 없었지만, 의의 태양의 찬란한 광선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비추었다. 그들이 낮아짐과 곤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환상이 주어졌고,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자들의 몰락과 구속주의 오심과 영원한 나라의 세움을 펼쳐 보였다." Manuscript Releases, 제16권, 333-335쪽.

올라이 강의 환상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환상이 나타내는 사건들에 대해 무엇을 예고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요구한다. 올라이 강의 환상과 관련된 예언적 "사안들"은 "예언이 주어지는 것과 묘사된 사건들 모두에서" "성령"에 의해 "형성되었다." 선지자가 환상을 받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선지자가 지목하는 예언의 사건들은, 둘 다 마지막 때 성취될 것들의 예언적 표상임을 아는 가운데 연구되어야 한다. 이전 구절은 다니엘이 "일곱 때"의 포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삼 일 반이 끝날 때 자신들의 포로됨을 깨닫고 회개로 주께로 돌이켜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이행하며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주께서는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다.

올래 강 환상의 '의의'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신 예언적 메시지의 '구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간략히 살펴본 첫 번째 '사실'이다. 그리고 인용된 본문은 우리의 주된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여야 함을 밝힌다. 다니엘 8장에서 그리스도는,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밝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니엘 8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팔모니, 곧 '기묘한 수를 헤아리시는 분' 또는 '비밀들을 헤아리시는 분'으로 계시된다.

그 "사실"은 "팔모니"라는 이름의 "의의"를 찾아야 하며, 그 이름이 예언의 "구조"와 "설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함을 요구한다. 다니엘 8장에서 인식되어야 할 세 번째 "사실"은, 바로 그 장에서 밀러파 운동의 중심 교리의 기둥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밀러의 가장 빛나는 보석은 14절에서 발견되었으며, 우리는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올라이 강의 환상에 대해 그 "사실"이 갖는 "의의"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밀러의 꿈에서 그의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상자가 놓였을 때, 그것은 태양의 밝기로 빛났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 상자가 더 커지고, 처음 밀러의 탁자 위에 놓였을 때 그것이 빛났던 것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밀러파 운동의 중심 기둥을 포함하고 있는

올라이 강의 환상 가운데 무엇이 마지막 때에 그 교리의 빛을 열 배로 증가시키는가?  
1798년의 끝의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무엇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가? 화이트 자매가  
"지금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 올라이 강 환상의 "사건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첫 세 가지 사실(올래의 환상, 팔모니로 계시된 그리스도, 그리고 교리의 중심  
기둥)을 솔직하게 함께 모아 본다면, 올래 강의 환상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하나의 단순한 전제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 결합된 사실들은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1798년에 봉인이 풀린 그 기별이 "시간에 걸려 있는" 기별이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시간 예언이라는 요소가 없었다면 밀러의 기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장과 관련된 네 번째 '사실'은 밀러파가 예언적 시간에 기초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묘한  
계산자(팔모니)'로 드러나셨다. 그 환상이 14절의 이천삼백 주야의 끝을 1844년 10월  
22일로 특정하는 데에만 국한되었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팔모니로  
드러나셨다는 계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재림주의의 신학자들은, 무지하고 귀가 가려운 자들이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과 연결된  
진리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리라고 그들이 판단한, 그들의 지어낸 이야기라는  
요리에 맛을 내기 위해,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는 질문의 중요성을 물어버리려 부단히  
힘써 왔다.

재림 신앙에서 무엇보다도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 되었던 성경 말씀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선언이었다. [다니엘 8:14.] 이 말씀은  
주님의 속히 오심을 믿는 모든 이에게 익숙했다. 수천 명의 입을 통해 이 예언이  
그들의 신앙의 표어로 되풀이되었다. 모두가 그 안에 예언된 사건들에 자신의 가장 큰  
기대와 가장 소중한 소망이 달려 있다고 느꼈다. 이 예언의 기간은 1844년 가을에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재림 신자들은 일반 기독교 세계와 마찬가지로 지구,  
혹은 그 일부가 성소라고 여겼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 마지막 큰 날의 불로 땅이  
정화되는 것이며, 이것이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한 때는 지나갔고, 주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예언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잘못은 어디에 있었는가? 많은 이들이 2,300일이 1844년에  
끝났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성급하게 이 어려움의 매듭을 잘라 버렸다. 그들이  
기대하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다는 것 외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들  
수 없었다. 그들은 만일 그 예언적 날수가 1844년에 끝났다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불로 땅을 정화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가 오지 않으셨으므로 그 날수는 끝났을 리 없다고 했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언 기간에 대한 종전의 연대 계산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2300일은 기원전 457년 가을, 예루살렘의 회복과 중건을 위한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시행될 때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었다. 이를 기점으로 삼으면, 다니엘 9장  
25-27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예언한 모든 사건의 적용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2300년 중 처음 483년에 해당하는 예순아홉 이레는 메시아, 곧  
기름부음 받은 이에게 이를 것이었고, 서기 27년에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 규정을 정확히 성취하였다. 일흔째 이레의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었다. 그의 세례 후 삼 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 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일흔 이레, 곧 490년은 특히 유대인에게 속한 기간이었다. 이 기간이 끝날 때, 그 민족은 그분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실에 도장을 찍었고,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 서기 34년이였다. 그리하여 2300년 가운데 처음 490년이 끝나면 1810년이 남게 된다.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더하면 1844년에 이른다. "그때에," 천사가 말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예언의 앞선 모든 규정들은 정한 때에 의심의 여지 없이 성취되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모든 것이 분명하고 조화로웠으나, 1844년에 성소의 정결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만은 예외였다. 그 기간이 그때 끝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체 문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며, 예언의 틀림없는 성취들로 확립된 입장들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재림 운동에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의 능력과 영광이 그 사역을 수반했고, 그것이 거짓되고 광신적인 열광으로 비난받으며 어둠과 실망으로 끝나도록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신의 말씀이 의심과 불확실 속에 빠져 있게 두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간의 이전 산정을 버리고 그에 근거한 운동의 정당성을 부인했지만, 다른 이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뒷받침된 신앙과 체험의 핵심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함에 있어 건전한 해석 원칙을 채택했다고 믿었고, 이미 얻은 진리를 굳게 붙들며 같은 노선의 성경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다. 그들은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 예언 기간의 산정에서 아무 오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소 주제를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다." 대쟁투, 409, 410.

화이트 자매는 올라이 강의 환상이 확인되는 바로 그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 주었다. 신학자들은 대쟁투의 앞선 문단에서 말하는 "예언의 기간들"을, 화이트 자매가 자신의 논평을 그에 한정된 것처럼, 2300년 예언에 포함된 다섯 가지 예언으로 제시한다. 어쨌든 그들은, 그 문단에서 그 예언들 가운데 네 가지가 특별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제에 대한 "훨씬 더 면밀한 연구"는, 복수형으로 쓰인 "예언의 기간들"이라는 용어가 화이트 자매의 글에서 보다 정확하게는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될 두 가지 예언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적해 준, 2,300년 기간에 속하는 다섯 가지 특정한 시간 예언이 있다. 첫째는 "어려운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세워질" 49년을 지목한 것이었다. 둘째는 기원전 457년을 기점으로 483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다. 셋째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고, 넷째는 유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490년의 끝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될 때를 지목한 것이었으며, 다섯째는, 그리고 오직 그 다섯째 시간 예언만이,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다. 앞선 네 가지 시간 예언은 1844년보다 훨씬 이전에 끝났다. 그렇다면 화이트 자매가 1844년에 끝나야 했던 "예언적 기간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사용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밀러주의자들의 첫 번째 실망을 다루면서,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밝혀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에 차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는 뜻을 가지셨다. 그분의 손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생긴 한 실수를 감추셨다. 주님을 기다리던 이들은 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시기를 반대하던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실망을 겪도록 뜻하셨다. 때가 지나가자, 구주를 기쁜 기대 속에 바라보던 자들은 슬퍼하며 낙담했으며,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기대하던 때에 그분이 오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마음을 감화시키지도 생애를 정결하게 하지도 못했다. 그 시간이 지나간 것은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기 위해 매우 적합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돌아서서, 자신들의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슬프고 실망한 이들을 조롱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시련의 때에 움츠러들어 뒤로 물러갈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에게 철저한 시험을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

예수님과 모든 하늘의 군대는 그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뵈고자 달콤한 기대 속에 오래 사모하던 자들을 동정과 사랑으로 바라보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시련의 때에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하늘의 기별을 받기를 등한시한 자들은 어둠 속에 버려졌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보내신 빛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 대하여 타올랐다. 어찌하여 그들의 주께서 오지 않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해 실망하였으나 신실했던 그들은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인도되어 예언의 기간들을 연구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 수치들 위에서 거두어지자 그 잘못이 설명되었다. 그들은 예언의 기간이 1844년에 이른다는 것과, 예언의 기간이 1843년에 끝난다고 보이기 위해 그들이 제시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그것들이 1844년에 종결될 것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았다. 초기 저술, 235-237.

"예언적 기간들"이란, 밀러주의자들이 처음에는 1843년에 이른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1844년에 이른다"고 한 "예언적 기간들"이었다. "1844년에 이르는" "예언적 기간들"은 세 가지였고, 모두 하박국의 판들에 나타나 있다. 그 세 기간 가운데 하나는 1844년에 단지 "닿는다"고 할 뿐이고, 나머지 둘은 1844년 10월 22일까지 이른다. 1,335일은 1844년의 바로 첫날까지 이르렀고, 그때 밀러주의자들의 첫 실망이 닥쳤으며, 하박국 2장과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의 지체의 때가 시작되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이천삼백 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이르렀고, 유다 남왕국에 대한 '일곱 때'의 이천오백이십 년도 또한 그때 끝났다. 팔모니는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자신을 '기묘한 수를 세는 이'로 소개하며, 그가 이어 제시한 예언적 '구조'와 '설계'에는 서로 연결된 기간 예언이 적어도 열 가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글에서 이 진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과 영혼에 새겨야 할 교훈을 세상에 주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나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며 말한다. "이런저런 일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기만적인 논리로 그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자리를 범죄와 불순종으로 이끄는 이론으로 대신하게 했다. 그리고 그의 궤변은 오늘도 에덴에서 했던 일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겸손한 어부들을 자신의 교회의 초석으로 택하셨다. 이 제자들에게 그는 자신의 나라와 사명의 본질을 설명하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제한된 이해 때문에 그분은 제약을 받으셨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 왔으므로, 그들이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이 진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간절히 전하고자 하신 많은 것들을 그들은 들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그릇된 사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 그들의 마음에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보신다. 제공되는 교육 속에서 교사들은 불신론자들의 사상을 뒤섞는다. 이리하여 그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들은 젊은이에게나 노인에게나 제시되어서는 안 될 사상들을 발언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그 결과로 어떤 추수를 거두어야 할지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0년 7월 3일.